

[보도자료] 혼자서도 잘 사는 '싱글하우스' 전문관 오픈

2019. 1. 31.



- 1인 가구를 위한 110만여종의 상품을 모은 '싱글하우스' 전문관 오픈
- 12가지 카테고리 편익성 높여 멀티형 제품까지 한 번에

2019. 1. 31. 서울 – 쿠팡(대표 김범석, www.coupang.com)은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'싱글하우스' 전문관을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.

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'워라벨', '소확행' 문화 확산으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. 이에 쿠팡은 1인가구 고객들도 쉽게 집을 꾸밀 수 있도록 110만여종의 상품을 모아 전문관을 선보인다. 전문관 메인 화면을 '쇼룸' 형태로 구성해 인테리어소품과 가구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.

전문관 내에서는 침대/매트리스, 침구, 화장대, 인테리어 소품 등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싱글 사이즈의 침대와 침구, 미니화장대, 좌식가구, 1인 소파 등 1인가구에 적합한 상품군을 모아 구성했다. 또, 액자테이블, 확장형 테이블, 파티션행거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(multi) 형 제품을 선별해 협소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.

이 밖에도 자취생을 위한 작고 편리한 미니가전,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높은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한 보안용품, 호신용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.

대표 상품으로 ▲베스트리빙 와퍼 소파베드가 있으며, 쿠팡가로 16만원대이다. 또한 ▲룸앤홈 스칸테이블, ▲아이리스 프리미엄 모던 선반 스탠드 1단 행거를 각각 쿠팡가 2만5000원대, 3만9000원대에 구매 가능하다. ▲보니타 대형 빈백 파우치, ▲이소품 모넬리 큐브 사이드테이블을 쿠팡가 7만9000원대, 3만9000원대에 선보인다.

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“우리나라 1인가구 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1인가구 고객들을 위한 전문관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다”며 “쿠팡은 약 500만 가지의 상품을 자정까지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